



# 近代 濟州<sup>1)</sup> 經濟의 巨木 晴岩 朴宗實

진 관 훈(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특보)

## I. 머리말

청암(晴岩) 박종실(朴宗實)은 근대 제주경제의 명실상부한 거목으로, 1905년 제주최초의 상점인 <朴宗實商店>을 제주면 1도리에 개점하여 모범적인 경제활동을 펼쳤던 인물이다. 특히 그는 당시 제주지역 상권을 장악하려 했던 일본인들과의 상권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제주경제인의 자존심을 지켜나갔던 무역인이기도 하다.

경제활동에서 박종실은 신용과 근면, 절약을 상인정신과 신용제일주의의 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현금과 부동산 그리고 상품에 분산투자하여 위험도를 낮추고 시세변동에 대비하는 포트폴리오적 자산운영방식을 가진 경제인이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규모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제주경제는 비약적인 변화를 했다. 그러나 현재에도 신용과 근면, 절약을 경제이념으로 삼아 제주지역의 토속자본 형성과 제주도민의 경제권 옹호와 회복을 위해 경제활동을 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의 성과인 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제주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했던 근대 제주의 경제인 박종실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제시해 줄 것이다.

## II. 박종실의 생애와 어록

### 1. 박종실의 생애

근대 제주경제의 대표적 인물로 박종실 외에 黃舜河<sup>2)</sup>, 康性益<sup>3)</sup> 등을 들 수 있다. 지금도

1) 학계의 일치된 견해는 아니지만 한국의 근대사회는 대체로 1876년 개항으로부터 1945년의 해방에 이르는 시기를 말한다(허수열, 1984). 제주사 역시 시대적 구분에 관한 논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편의상 이 글에서는 이 견해에 따르도록 하겠다.  
 2) 황순하(1896~1978)는 호는 牛公으로 제주지역의 사업가로서 해방 이후 五賢學園을 설립하여 육영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는 다년간 양조업을 운영하여 자금을 축적하는데 성공하여 제주양조(주), 鷄林자동차(주), 南星産業(주) 사장 등을 지냈다. 1939년 제주도어업조합 감사, 1941년 제주도물산(주), 제주해면기업(주), 興亞商工(주) 사장, 1943년 영화·연극 및 부대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朝日俱樂部를 설립하여

제주지역에서는 1920년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40년 간 동안 제주지역 가장 모범적 인물로 한라산 북쪽에는 박종실, 한라산 남쪽에는 강성익을 들고 있다.

박종실은 1885년 5월 4일(호는 晴巖, 본관은 밀양) 제주시 이도동에서 부친 元吉<sup>4)</sup> 씨와 모친 耽羅崔氏의 3남(宗實, 宗學, 宗熙) 1녀(宗順)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 가게 때문에 5살 되던 해 부친을 따라 큰댁이 있는 전라도 부안으로 이사를 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큰댁의 형제들과 어울려 한학을 공부하며 유년시절을 보내다가 12세 때 다시 제주로 내려온다. 제주에 내려온 뒤 박종실은 목포 등지로 장사 길에 나선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sup>5)</sup>

이렇듯 박종실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수단으로 장사의 길을 선택하였다. 처음에는 성냥, 양초, 실, 바늘, 창호지 등을 공급하는 소규모 소매업에서 출발하여 이 마을 저 마을로 행상을 다니며 돈을 모은 다음, 이 돈을 밀천

삼아 1903년 18세 되던 해에 매입한 寶都飯店(현 제주시 칠성로)자리에 일상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상설 소매상점을 개설했다. 이 당시 박종실은 가게 뒤뜰에 있는 앵두나무와 복숭아나무 열매를 하나도 따먹지 않고 가게에 내놓고 팔 정도로 장사에 대한 애착심이 강했으며 항상 최선을 다 하였다.<sup>6)</sup>

이후 1907년 22세 되는 해 박종실은 모친을 여의고, 얼마 뒤 부인 晋州姜氏<sup>7)</sup>를 맞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 한 달 후 박종실은 뜻밖에도 제주읍 서문골 갑부 趙德三으로부터 어머니가 생전에 맡겨두었던 60圓을 돌려받아 이를 장사미천으로 삼아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게 되었다.<sup>8)</sup>

당시 제주지역에는 식량뿐만 아니라 면직물, 의류품, 기계류 등에 이르는 모든 생필품을 외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지역상권은 일본상인의 손에 놓여있었다. 그나마 제주도에 생산되어 육지로 수출되었던 해산물, 소가죽, 한약재 역시 일본인 중개인의 손을 거쳐야만 거래가 성

사장은 일본인 萩原駒藏이고 그는 감사역을 맡았다. 김찬흠 편저,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0, 434쪽

- 3) 강성익(1892~1968)은 호는 南洲로 제주지역의 사업가로 1960년에는 제주도지사를 역임하였다. 1928년 남부운수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서귀포를 기점으로 모슬포와 성산포간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그는 통조림공장과 단추공장을 경영하고 陸海物産 판매업까지 운영하였다. 김찬흠 편저, 상계서, 51쪽.
- 4) 원래 박씨일가는 전라도 靈光이 고향이며 지금부터 100 여 년 전 부친 박원길이 단신으로 제주도에 건너와 商路를 개척했고 박종실이 그 뒤를 이어 자수성가하였다. 청암선생추모회, 『청암선생-신용은 생명』, 일간내외경제코리아헤럴드, 1979, 150쪽.
- 5) 청암선생추모회, 전계서, 24쪽.
- 6) 청암선생추모회, 상계서, 26쪽.
- 7) 崔甲壽(朴景勳 부인)씨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중문면 대포리 출신으로 과수원에서 손수 가꾼 채소를 차곡차곡 묶어 노인당앞쪽에 서던 장에 내다 팔 정도로 시아버지보다 더 부지런하고 영리했다고 술회한다. 제주역사연구회, 『제주 제주인』, 1992, 74쪽.
- 8) 박종실의 3남 박경훈에 의하면 부친은 18세때 부터 帆船을 타고 목포를 왕래하며 육지와 교역을 했다. 오직 신용만을 자본으로 갈포, 담배, 성냥, 양초 등 일상용품을 제주도 일원에 독점 공급하면서 착실히 기반을 닦은 부친은 1920년대 초에 淸代丸 服代丸 등 제주도와 일본 大阪을 잇는 정기연락선이 생기면서 일본에서 타월, 양산, 솜, 석유, 밀가루 등을 잡화를 들여와 크게 성공하였다고 한다. 또한 부산과 목포 등을 거점으로 한 일본인 상인들과 치열하게 경쟁하여 결국 일본상인을 누르고 제주도 일원의 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한다. 청암선생추모회, 상계서, 150쪽.

사되던 상황이라 모든 거래의 이익 또한 일본인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종실은 제주지역 상권의 탈환과 토속자본 형성을 위해 당시 일본인이 독점하고 있던 제주상권에 도전장을 내었던 것이다<sup>9)</sup>. 당시 그는 물가시세 변동에 대비하여 재산을 현금, 부동산, 상품으로 분산 투자하고 근면, 절약, 신용을 생활화하며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다. 또한 그는 朴明效, 金根蓍, 宋斗玉, 朴再萬 등 지역경제인과 함께 바람직한 상도의를 추구하는 한편 제주지역 토착자본에 의한 제주도민들의 경제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경제활동의 역점을 두었다.

한편 박종실의 경제활동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해보면,

우선 그는 1922년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해운업에 손을 대면서 본격적인 해운업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박종실의 해운업은 제주지역 뿐 아니라 한국 전체 해운업의 시초가 되었다. 해운업 확장을 위해 1922년 제주축항기성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동년 8월에 제주자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해운회사인 제주상선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감사역을 맡았다. 동사는 평소 친교를 맺어온 김근시, 崔允淳, 金

壬吉 등이 합작 설립하여 부산, 목포 등과의 연안항로의 개설은 물론 大阪, 下關의 일본항로까지 개설하고 제주도민의 해외진출<sup>10)</sup>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본격적으로 한국해운업의 발전에 초석을 만들었다.

또한 1925년 제주전매서 개설에 참여하여 초창기 전매서 발전에도 참여하였고 제주도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하자 강성익, 최운순 등과 함께 1925년 제주통운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주도 육상교통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1931년에는 제주도 유통분야의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밀가루, 설탕, 소주 등을 주요 품목으로 취급하는 제주상사조합을 설립하고 초대조합장에 취임한다. 이 조합은 1935년 제주상사주식회사를 발기하여 법인회사로 되기까지 적지 않는 애로를 겪었다고 한다. 동년 제주상사주식회사를 해산한 후 삼일해운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회사대표 취체역으로 취임되고 같은 해 제주상사조합도 제주상사주식회사로 개편하였다.

그 후 박종실은 제주상공인의 친목과 단결로서 상공업상의 피해를 교정하고 상권의 옹호와 발전을 위하여 제주상공회<sup>11)</sup>을 설립하여

9) 1930년 이전에는 무역수출·입 모두 목포가 4할, 부산이 6할을 차지했는데 大阪 항로 개통 이후에는 상품가격 및 저렴한 운임 등의 관계로 大阪 방면과의 거래가 왕성하게 되어 무역정세가 일변하였다. 그래서 제주도는 독자적인 위치와 특산물을 갖고 大阪, 下關 등 일본의 상권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왔다. 당시 주요 수출품은 鮮魚, 貝類, 버섯, 전복, 어물통조림, 牛皮, 약재, 繅綿 등이며, 수입 품으로는 米穀, 小麥粉, 설탕, 면직물, 기타 의류품, 기계 및 부문품, 맥주, 소주, 성냥, 모자 등 이었다. 善生永助, 『濟州島生活狀況調查』, 1929, 75~78쪽.

10) 제주도민의 본격적 渡日이 시작된 것은 1919년 阪神 공업지대로의 모집에 응하면서 비롯되었다. 1922년에는 남자가 3천1백98명, 여자가 3백5명으로 총 3천5백3명이 도일하였다. 1925년 渡日者는 1만5천9백6명, 1927년 1만9천2백4명으로 점차 증가하여 1939년에는 약 8만 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 즉 1가구에 1명씩 渡日하였다. 진관훈, 『일제하 제주도 경제와 해녀노동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제27권 제1호, 2004, 166쪽. 河 明生, 『韓人日本移民社會經濟史』, 明石書店, 1997, 53~57쪽 참조.

11) 제주상공회의소는 1942년(昭和 17년) 6월 5일 당시 제주상공회 사무실에서 창립하고 조선상공회의 소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당시 상공회의소는 근거법령에 따라 창립발기인 30인 이상으로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회원 유자격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었으며 영업세(본세) 7원 이상의 돼야 가능했다. 한편 당시 제주상공회의소 임원은 회장 島田宗實(朴宗實),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제주도내 중소기업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민간단체인 제주상공회는 상공인들의 인식부족으로 권익옹호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sup>12)</sup>.

1939년 박종실은 삼일해운주식회사를 제주상운주식회사로 개편하여 사장에 취임하고 1940년 4월에는 제주도생활필수품상업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장에 취임하였다.

그 후 1945년 4월 일제에 의해 소개령이 내려지자 제주에서의 모든 활동을 정리하고 전남 나주로 이주하였다가 해방 직후 제주로 귀환하였다. 제주 귀환 후 기존 사업체 등을 정리하여 새로운 기업경영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1946년 스탠다드석유회사와 특약점 계약을 맺은 다음 제주도석유배급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장이 되었고 1952년에는 濟州美油株式會社를 남창석유주식회사로 개편하여 아들 朴泰勳이 그 운영을 맡아왔다.

또한 박종실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해운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는데 1958년에는 철강선인 和洋號를 객선으로 개조하여 남창운수사를 설립하였고 1961년 7월에 제주부두의 하역권을 획득하였으며 裡理號, 平澤號 등의 대리권 등을 얻는 등 꾸준히 발전하다가 1966년 4월 남창운수주식회사로 개편하여 제주상운주식회사의 명맥을 이었다.

이처럼 박종실은 기업경영에 매진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완수와 부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제주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헌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1949년 10월에는 민간인으로는 처음으로 제주적십자사 지사장에 취임하여 약 2년 간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며<sup>13)</sup> 이어 1957년 6월에는 제주도서관을 건립하여 교육관련 기관과 학습공간의 절대 부족하던 척박한 제주도 교육환경에서 제주교육의 기틀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밖에 1965년 11월에는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이들이 시간을 보내며 즐길 수 있는 안식처인 경로당 '晴岩亭'을 건립하여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2. 박종실의 語錄

박종실의 인생관, 기업관 등은 청암선생추모회에서 작성한 <청암선생 語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청암선생 어록><sup>14)</sup>을 보면 그가 제주도의 다른 경제인에 비해 독특한 신념과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록 1》사람은 인정과 도덕이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그를 멀리한다.

《어록 2》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해서 일이 잘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나는 어쩐지 하느님이 도우셔서 일이 잘된 것 같이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록 3》만족함을 알고 늘 만족한 마음을 가지면 평생동안 욕된 일이 없고, 욕망을 멈추는 것을 알고 늘 억제하면 일생 부끄러움이 없다

부회장 高松昌炫, 상임의원 高峰秀明, 衛藤不二生, 安村壽雄 등이다.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상의65년사』, 2000, 596~598쪽. 《한라일보》, 1999. 2. 22 참조.

12) 변승규, 『제주도약사』, 제주문화, 1992, 189쪽.

13) 1949년 3월 15일 미군정하에 조선적십자사가 창립됨에 따라 동년 5월 15일 제주읍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제주도지사장 柳海辰을 선출하였다. 1949년 10월 5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개편하여 제주중학교 교정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지방대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원 18명을 선출하고 초대 제주도지사장에 박종실을 선출하였다. 제주도, 『제주실록(1945-1996)』, 1997, 27~28쪽.

14) 청암선생추모회, 전게서, 161~162쪽.

(知足常足 終身無辱 知止常止 終身無恥).

《어록 1, 2, 3》에서는 인간의 도덕성, 천우신조, 욕망의 절제를 통한 박종실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박종실은 인성과 도덕을 강조하고 혼자 보다는 전체가 중요하며 욕망의 억제를 삶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박종실의 인생관, 도덕관은 그가 초년시절에 익힌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오랜 삶의 경험과 경륜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록 4》우리나라는 공업입국이어야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다.

《어록 5》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하늘의 뜻을 따르면 관청도 맑아지고, 백성도 스스로 안심하게 되고, 처가 어질면 남편이 화를 입는 일이 적을 것이고,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관대해 진다(國定天心順 官淸民自安 賢妻夫禍少 子孝父心寬).

《어록 4, 5》에서는 공업화의 중요성과 국가의 통치는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국가관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람이 태어나서 국가와 사회에 보람이 있는 일을 해야 태어난 가치를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신념에 대한 구체적 실천으로 그는 ‘무역인으로 국가에 봉사하자!’ 라는 의지를 가지고 교역을 통해 일본인으로부터 피해를 막고 국가에 공헌하며 무역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이는 실학과와 개화파의 실학사상, 경제사상, 상공업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어록 6》신용은 생명이다.

《어록 7》절약이란 끝이 없다.

《어록 8》남자는 술, 담배, 여색, 잡기를 금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지. 나도 술을 먹고 엄병덤병 했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

《어록 6, 7, 8》은 신용, 절약, 근면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박종실은 자조와 자립의 정신, 덕과 신용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기업관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박종실상점>은 물건의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신용과 절약, 근면을 바탕으로 한 경영방침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박종실 개인의 삶의 체험과 실천에서 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절약과 근면, 절제는 기업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앞선 시대를 뛰어간 선인으로서 현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강한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다.

《어록 9》어떤 투자라도 자기 실력 삼분의 일 이상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재산을 보존하는 방법에는 재산 중 삼분의 일은 현금, 삼분의 일은 부동산, 나머지는 상품으로 해 놓으면 여하한 변동에도 큰 이익은 없다 해도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三均配之論).

《어록 10》이익은 혼자 차지하면 안 되는 것이야. 고루 나누어 가져야 하지. 사업도 만찬가지로 정신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조금씩 남겨서 많이 팔아야 되지. 박리다매가 좋아(利不可獨食).

《어록 11》돈이란 빌려 주어 도움이 되기보다는 친한 사이를 멀게 하기가 쉽지.

《어록 9, 10, 11》은 경제인의 투자관, 이익분배와 판매방법, 금전관을 강조한 부분으로 박종실은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전 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사업에 전 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날엔 굶어 죽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것은 현대 투자론적 시각에서 보면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정치·사회적 상황이 불안정 속에서 선택하였던 전

략으로 박종실식 경영의 특색이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금전 관계로 義가 상하여 절친한 사이가 원수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강조하여 합리주의적 금전관계의 정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후세에 강조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 III. 일제하 제주도 공장설립 현황과 박종실의 기업활동

#### 1. 제주도 공장설립 현황

1910년대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농업과 수산업, 임업과 축산업 등 대부분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수공업 비중이 미미했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의 공업활동은 미흡하였고, 제조업 역시 수산물 가공이나 생필품, 공예품들의 가내수공업, 특히 죽제품, 관물 등이 농가의 부업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sup>15)</sup>.

대부분 “제주도의 공업은 유치한 수준 단계로 제주도의 자원, 즉 자연환경을 이용한 약간의 자원을 가공하는 수공업 제품들, 예를 들면 죽제품, 조선모자, 탕건, 양태 등이 주를 이루었고 이 외에 주로 자급자족적 성격을 지닌 약간의 면직물 제품이 존재했었다”고 한다<sup>16)</sup>.

이처럼 1910년대 초기 제주도의 공업은 그 수준이 미약했었고 도외로 반출되는 품목은 아주 제한적이었다. 아울러 수입대체의 목적, 자급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생산 역시 제한적이었다고 보아진다.

1910년대 중반에 이르러 나타나기 시작한 패각류나 통조림 혹은 수산물 가공업 등과 같은 제품은 주로 일본인들이 제주도에 진출하여

스스로 경영하였고 제품도 바로 일본으로 반출하였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민들의 고용창출 효과, 지역내부의 자본기술의 축적 등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었다<sup>17)</sup>.

한편 1920년대에 들어 제주도의 공업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1926년 말 현재 제주도에는 34개(분공장 2개 포함) 공장이 설립되었는데, 이 중 일본인 공장은 13개, 한국인 공장은 21개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의 제주도 공장은 전통적 공업으로 양말, 주조제조 공장 등이 주를 이루었고, 이외에 일본인들의 제주도 진출과 함께 나타난 공장, 즉 전북·소리를 이용한 통조림공장, 전북·소라 껍질을 조제(연마)한 단추제조 공장 등이 있었다.

당시 특징적인 현상은 수산물 가공품, 조개 단추 이외에 표고버섯을 제조하는 공장이 설립됐다는 것이다.

그 후 1930년도 제주도에는 53개의 공장이 존재하였는데 일본인 공장은 22개, 한국인 공장은 31개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의 한국인들은 대부분 양말제조를 중심으로 통조림, 조개단추粗製(연마), 주조제조 공장 등을 설립한 반면 일본인들은 통조림과 표고제조를 중심으로 설립하면서도 조개단추조제(연마), 주조, 옥도제조 공장 등을 연이어 설립하였다.

1930년 후반에는 외부로부터 공산품들이 대거 수입되면서 제주도 공업이 점차 침체되기 시작했다.

일본인이 제주도 근해에서 어업 활동을 시작하면서 해산물 가공공장이 생겨났고, 육·해산물을 원료로 하는 주조, 제빙, 패구 등의 공장도 생겨났다. 또한 민주사변 이후 군수품의 공출을

15) 진관훈,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2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9, 132쪽.

16) 高禎鍾, 『濟州島便覽』, 1930, 36쪽.

17) 진관훈,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2004, 도서출판 각, 322~323쪽.



목적으로 하는 옥도제조 공장들도 생겨났다.

1910년부터 1939년까지의 30년간 제주도에 설립된 공장 수는 32개이다. 1910년대 2개에 불과하였으나 1920년대에는 21개가 설립되었으며, 1930년대는 9개로 1920년대에 비해 공장 설립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국적별로는 한국인 20개, 일본인 12개로, 그중에 제주도민은 대부분 소주제조와 소라통조림 등을 생산한 반면 일본인은 옥도제조, 소라통조림 등을 생산하였다.

특히 옥도 제조업은 해조류, 우뭇가사리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옥도 톱키 및 옥도 폼 등의약품 원료를 추출하는 것인데, 일본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옥도 원료 채집이 일본 내에서 어려워지자 제주도로 눈을 돌려 옥도 제조공장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한림 7개, 제주, 성산, 구좌 등 4개, 서귀, 애월 등 3개, 이외에 대정, 조천, 표선 등 2개, 안덕 1개로 분포되어 있다<sup>18)</sup>.

대부분의 공장설립 지역은 한림을 중심으로 원재료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항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한림은 성산포, 서귀포와 더불어 가장 큰 항구였다.

이처럼 일본인이 설립한 공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림과 성산지역에 분포한 이유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제주도를 식민지 교두보로 삼고 해산물을 가공하는 각종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1870년대 일본 잠수기업자들이 이미 들어왔고 제주도 남서부와 북서부 지역에서 수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특히 1905년에는 일본인 石原·鈴木 등이 합자하여 한국물산주식회사를 설립해 화학원료로서의 옥도제조 및 멸치잡이 어업 등의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옥도제조에 필요한 감태 채취에 있어서 처음에는 三重縣 志摩의 해녀가 고용되었지만 나중에는 제주도 해녀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결국 당시 제주지역의 공장설립은 일본인들에 의해 처음 세워진 것으로 판단되며, 주로 제주지역의 풍부한 해산물 원료를 가공하기 수월한 주요 항구와 연접한 지역에 많은 공장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장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제조업이나 여타 산업부분의 경제활동도 아울러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2. 박종실의 기업활동

### 가. 박종실상점

박종실은 행상에서 출발하여 1905년 8월에는 제주면 1도리에 '박종실상점'을 개점하였다.<sup>19)</sup> 자본금은 소규모금액으로 시작하여 식료품, 견면포, 철물류 등의 잡화를 취급하는 무역상이었다. 영업목적은 제주도 물자를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의 물자를 제주로 들여오는 수출입 교역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에 따른 법인회사를 하나씩 설립해 나갔다<sup>20)</sup>. 그 후 박종실이 법인회사를 직접 설립한 회사는 제주상선주식회사(1922년), 제주상사주식회사(1935년), 제주상운주식회사(1939년) 등 3개회사이다. 이들 회사들은 박종실상점을 구심점으로

18) 고광명·진관훈, 「일제하 濟州島 회사의 설립과 경영활동」, 제48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 자료집, 2005, 474쪽.

19) 조선실업신용대감(1931), 고승제(1975)에 따르면 박종실이 1905년 8월에 박종실상점을 개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朝鮮總督府官報 中 濟州錄』에는 1915년 11월 30일 광주지방법원(제주지청)에 상호를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박종실은 1905년에 상업 활동을 개시하고 1915년에 상호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 濟州道, 『朝鮮總督府官報 中 濟州錄(1915年12月7日字)』, 1995, 53쪽.

형성된 연계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종실상점은 개인회사였기 때문에 법인회사의 범주에 들지 못하였지만 경영조직으로서의 역량은 상당한 규모를 지니고 있었다. 조선실업신용대감(1931)에 따르면 박종실상점이 연간 판매한 매출액은 4만6천8백圓으로 제주도에서는 제1위를 차지하였다. 제2위는 최윤순으로 4만3천圓, 제3위는 村田嘉藤治으로 4만2천圓이었다.

한편 부동산 등 재산총액을 비교하여 보면 박종실의 소유한 재산총액은 8만5천圓이었으며 최윤순은 4만6천圓, 村田嘉藤治은 5만5천圓이었다. 그 외의 한국인들은 3만5천圓에서 6천2백圓에 이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순자산은 박종실이 7만圓, 角健輔이 6만5천圓, 최윤순과 石井榮太郎이 3만圓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박종실상점의 경영활동은 단순한 잡화류의 소매상에서 그치지 않고 자본력을 여러 회사에 나누어 분산투자하면서도 법인회사의 핵심은 언제나 박종실상점에 두었다. 또한 그는 여러 사업에 다각적 경영을 도모하면서도 언제나 박종실상점에서 구심점을 찾고 여타 부적절한 이권사업에는 손대지 않았다. 당시 제주도에서 특산물을 가공하는 회사가 적지 않았지만 박종실은 제조업에 진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박종실은 어디까지나 상인으로써 상인정신에 충실하려 한 것이 그의 사업철학이었다고 여겨진다.

## 나. 제주상선주식회사

1920년대 제주도에 상업과 교통의 발달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제주도는 본래 토지생산성이 낮아 토지자본의 성장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급격한 자본주의 진화과정 속에서 지주자본의 상업자본 혹은 산업자본으로의 전

환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은 주체적으로 지역자본을 축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1922년 제주상선주식회사의 설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제주상선주식회사는 1922년 8월 설립된 후 1923년 1월 1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23년 2월 1일 본점을 제주면 건입리로 이전했다. 자본금은 15萬圓(불입자본금 3만7천圓)으로 신용, 지불, 業態는 B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영업목적은 大阪, 下關 및 조선 각 연안항로의 선박영업을 주로 하고 기타 부대사업으로 금전대부도 겸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같은 해 김응두, 고석종이 퇴임하면서 회사대표 취체역을 김근시로 정했다. 동사는 1934년 9월 27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게 되고(해산등기는 1934년 10월 9일), 1935년 11월 25일에는 청산 종결하여 그 결산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다. 당시 巨濟運航株式會社, 森信汽船會社, 延安汽船會社 등의 해운회사가 다른 지방에서 잇따라 설립됐으나 이들은 연안항로를 운항하는 국내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부산, 목포, 군산 등의 개항에도 조선인에 의한 상선회사의 설립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제주상선주식회사는 부산, 목포 등의 연안항로의 개설은 물론 大阪, 下關 등의 국제항로까지 개설했던 것이다. 따라서 목포, 부산, 군산, 원산 등 수많은 개항장에서도 한국인 상선회사가 끝내 실현되지 못했던 점에 미뤄 볼 때 제주상선주식회사의 존재는 당시 상황에서 커다란 경제적 의미가 있다.

한편 박종실의 숙원사업은 제주자본에 의해 해운회사를 설립하는 일이었다. 1922년 8월 김근시, 최윤순, 김임길 등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합자하여 제주상선주식회사를 설립하



였는데, 이는 제주자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해운회사이다. 회사경영에 있어서는 김근시를 회사대표 취체역으로 추대하고 감사역에는 김임길, 박종실은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최윤순과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취체역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국내지역에 한정하여 운행하지 않고 제주도민의 해외진출에 크게 이바지하여 해운업의 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만들었다. 점차 박종실상점의 사세는 제주상선회사를 통한 수출입에 힘입어 더욱 확장되었고 '利不可獨食'의 신념에 따라 판매가격을 낮춤으로써 도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 다. 제주상사주식회사

박종실은 1931년에 상품유통의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소맥분, 설탕, 칠성소주 등을 주요 판매품목으로 하는 제주상사조합을 설립하여 초대 조합장을 맡았다. 조합원에는 高昌炫, 洪宗彦 등이 참가하였는데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 중 소맥분 거래에 있어서는 日淸製粉의 中寅商店(下關의 총대리점)과 특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부산과 목포지역의 총대리점 사원들은 근거리의 자기들과 거래하지 않고 下關지역과 직접 상대했다고 하여 상거래의 방해공작을 하였으며, 제주상사조합에 일본인조합원의 가입을 간접적으로 중용하였던 것이다. 또한 제주상사조합의 임의단체를 법인단체로 개편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1935년 6월에는 법인단체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주주로는 角 健輔, 古賀龜太郎 등 일본인 2명을 가입시키고 제주상사주식회사를 발족하였다.

제주상사주식회사는 1935년 6월 2일 제주읍 2도리에 설립하였다(설립등기는 1935년 7월 20일). 동사는 자본금 3만圓으로 일본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된 합자회사이다. 설립목적은 ① 잡화류 판매(설탕, 밀가루, 소주, 맥주, 사이다, 잡곡, 비료, 석탄, 석유, 직물 등), ②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취득, 확실성 있는 사업에 투자, ③ 보험 대리업무, ④ 부대사업 일체를 취급하는 무역상사이었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취체역으로 角 健輔, 박종실, 고창현 등이며, 감사역은 古賀龜太郎이 선임되었으며 존립시기는 설립일로부터 만 20년이었다.

또한 1940년 4월에는 제주도 생활필수품 상업조합을 창설하여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사장직을 수행한 것은 박종실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민족감정의 발로였다고 보여 진다.

또한 평소 박종실이 가지고 있던 신념 즉, 제주도민의 원활한 소비생활을 위한 기업활동을 생활필수품조합을 통하여 실천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 라. 제주상운주식회사

1922년 8월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해운회사인 제주상선주식회사는 급변하는 경제적 환경 하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1934년 9월 27일(청산종료일은 1935년 11월 25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다. 제주상선주식회사가 재계에서 사라지면서 삼일해운주식회사를 1936년 3월 30일 제주읍 건입리에 설립하였다. 자본금 총액은 2만2천5백圓(불입자본금 : 2만2천5백圓)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 자본규모가 그다지 큰 것은 아니었지만 1주당 금액은 50圓이고 1주당 불입금액도 50圓이었다. 당시 제주도의 법인기업들은 공칭자본금과 불입자본금

이 일치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sup>21)</sup>. 이 회사의 설립목적은 선박의 화물 및 여객의 운송영업을 취급하는 해운회사이었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회사대표 취체역 金泰玟, 취체역 金泰國, 文在璿, 감사역 文在奭이 선임되었으며 존립시기는 설립일로부터 만 20년이였다.

이후 1939년 7월 16일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일해운주식회사는 제주상운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다. 김태민, 문재숙은 취체역 임기가 만료되어 동일 총회에서 재선 중임하게 되지만 박종실은 회사대표 취체역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이로써 제주상선주식회사가 소멸되면서 김근시는 해운업계에서 사라졌으며, 반면 삼일해운주식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박종실이 제주해운업계의 유일한 중심인물로 부각되었다. 이때 국제항로가 취소되고 주로 제주-목포간 정기여객선인 朝鮮汽船株式會社 소유의 晁和丸와 晁永號의 선박대리점으로 변모되고 말았다. 그 후 晁和丸는 미군의 폭격으로 침몰되고 1945년 이후에는 晁永號 한 척만이 제주-목포간을 왕래하며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 후 晁永號는 朝鮮汽船株式會社로부터 近海商船株式會社로 소유권이 넘어 갔다.

박종실은 제주상운주식회사의 경영을 문재숙, 김태국에 일임하여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이번에는 近海商船株式會社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약함으로써 1939년 설립이후 제주상운주식회사는 해체되었다.

그 후 박종실은 철강선인 화물선 和洋號를

객선으로 개조하여 1958년 9월에 남창운수사를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1961년 7월 대표이사 박태훈은 하주에 대한 편의제공과 화물수집의 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운송사업법에 의한 하역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로써 제주도에는 대한통운주식회사, 제주해륙운수회사와 더불어 3개 운수회사가 경쟁을 시작하게 된다. 1962년 이후 회사별 하역실적을 보면 남창운수사가 50%, 나머지 50%는 대한통운주식회사와 해륙운수주식회사 2개 사가 차지하게 되었다. 그 후 동사는 대한해운공사의 제주-부산 간 화물선인 裡里號, 平澤號의 대리권을 얻었으며, 1966년 4월에는 남창운수사를 남창운수주식회사<sup>22)</sup>로 개편하였다.

#### IV. 박종실의 경영정신과 사회적 공헌

##### 1. 박종실의 경영정신

박종실은 몇 가지의 뚜렷한 신념과 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영정신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겠으나, 그의 경영정신은 그의 경영철학에서 그 틀을 형성하게 되는데 ‘信用第一主義’, ‘三均配之論 投資觀’, ‘合理的 企業經營觀’ 등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겠다.

##### 가. 신용제일주의

박종실은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직을 무기로 한 경영정신이라고 술회한다. 그리고 신용,

21) 박종실이 일본인 2명과 합자하여 경영하고 있었던 제주상사주식회사는 공칭자본금 3만圓에 대해 불입자본금이 3만圓이었다. 제주목재주식회사도 공칭자본금 3만圓에 대해 불입자본금이 3만圓이었다. 고승제, 『한국경영사연구』(한국능률협회, 1975), 267~268쪽.

22) 제주연감(1977)에 따르면 박종실의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기업경영에 참여한 박태훈은 1970년대 이후 남창석유주식회사(사장), 남창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를 운영한 바 있으며, 朴奭勳(朴宗熙 2남)은 남창운수주식회사 대표(카페리 제주취급소장)를 역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주연감사, 『제주연감』(1977), 320~321쪽.

근면, 절약 중에서 신용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여 항상 신용제일주의를 기본신조로 삼아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해 왔고 이를 충실히 실천적 행동으로 이행하였다. 그가 사업을 경영하면서 신용을 생명으로 알고 행동에 옮긴 경우는 많은데 신용을 얼마나 중시하였는지는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도 나타난다. 일제하 朝鮮殖産銀行 제주지점<sup>23)</sup>에서 당시의 돈 3천 원 정도를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는 당좌차월을 갖고 있던 사람은 박종실을 포함하여 세 사람 뿐이었을 정도로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거래가 좋았다.

해방 후 박태훈(박종실의 3남)이 상점을 맡아 사업을 하면서 부친에게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으나 박종실은 자식에게조차 담보는 물론 보증도 서 주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남에게 기대지 말고 일어서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잡화상을 경영할 때 수백 종에 이르는 상품의 출납을 본인 스스로 일일이 맡아보면서 언제나 잔고를 알고 있었고, 재고가 없도록 물건을 직접 주문하는 세심함과 근면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처럼 박종실은 1905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50년 간 이상을 일제의 탄압과 6.25 동란을 겪으면서 제주도 기업을 성장·발전시켜 왔다.

그가 박종실상점(1905)을 비롯하여 제주상선주식회사(1922년), 제주상사주식회사(1935년), 제주상운주식회사(1939년) 등을 차례로 설립·운영하여 괄목할 만한 영업성과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신용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의 탁월한 경영전략과 실천적이고 추진력 있는 기업경영의 결과였다.

## 나. 삼균배지론 투자관

박종실의 경영활동 과정을 고찰해 보면 식민지기, 해방, 6.25와 같은 시대적 혼란기의 사회 속에서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독특한 경영원칙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본의 구성을 현금, 상품, 부동산의 삼분법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으로 위험을 줄이면서 폭리나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투자관으로 현대경영학의 개념에 보면 ‘포트폴리오(portfolio)’라고 할 수 있다.

대동아 전쟁 당시 박종실은 전라남도 나주군으로 이주한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가져갔던 사람이 있었으나, 그는 재산을 그대로 두고 갔다. 결국 재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갖고 갔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떨어져 큰 손해를 보았지만 그의 부동산은 그대로 남아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1951년에는 석유업체 德順社을 맡아 경영하게 되었는데 당시 자본은 휘발유 3백 드럼뿐이었다. 석유사업을 시작한지 1년 후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물은 적이 있었는데, 또 다시 휘발유는 몇 드럼이나 남았냐고 묻고 난 다음 휘발유 3백 드럼으로 시작했으니 언제나 휘발유 3백 드럼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박종실의 미래에 대한 안목은 1919년 10월 아무도 흥미를 느끼지 않는 제주시 동문로터리 남쪽에 자리잡은 속칭 소래기동산 2,080평을 매입한 데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삼균배지론 투자 원칙에 의한 토지매입 사례로 1927년에는 다시 2,000평을 매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이 주위에 상당한 토지를 매

23) 일제는 1918년 朝鮮殖産銀行을 설립한 후 1911년에 설립한 光州農工銀行 제주지점(한국인 경영)을 강제로 해산시켜 흡수 합병하였다.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세림, 2000), 243쪽.

입하였다. 당시 이 땅은 불모지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이었지만 제주도의 관문인 산지포구를 굽어보는 위치에 있고 지형이 자연경사를 바다 쪽으로 이루고 있으며 배수가 잘되는 고지였으므로 장차 주택지로서 최적지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 토지는 박종실이 예견한대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칠성통과 더불어 제주도 제1의 요지가 되었다. 그 후 제주도의 경제중심지가 되면서 동문공설시장이 개설되고 도내 모든 물자의 산지가 되어 교회와 극장이 건축되었다. 그렇지만 박종실은 토지를 당국에 기꺼이 무상으로 회사했으며, 이는 도로 및 공공건물로 사용되었고 토지 중의 일부를 개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반드시 기와 혹은 슬라브, 최소한 스텝 지붕으로 건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시가지 미화를 손수 시행하는 선견도 보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박종실이 재테크를 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재산 중 삼분의 일은 현금, 삼분의 일은 부동산, 나머지 삼분의 일은 상품으로 균배해 놓고 향후 물가의 변동 등과 같은 불규칙한 경제 변동 시에도 위험을 분산시켜 장기간으로 보면 큰 이익은 없다 할지라도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다. 합리적인 기업 경영관

박종실은 제주도에 근대적인 경영기법을 최초로 도입한 선구자였다. 20세기 초 일본인들이 들어와 순박한 도민들에게 그들의 상술을 강제 적용시켰다.

사농공상의 사회질서를 고집하던 토착상인들은 꼼짝없이 일본인에게 모든 상권을 넘겨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박종실은 일본인 독점의 상권에 도전을 위해 제주도민 특유의 대량생산 기법과 새로운 판매방법을

찾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엿을 만드는 법도 바꾸고 파는 상술도 달리해 이를 발전시키고자 1905년 박종실상점을 칠성통에 개점하여 명성이 알려졌다. 이후 박종실상점을 거쳐 간 종업원들도 박종실의 영업기법을 익히고 난 뒤 독립하여 제주의 상공인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는 합리적인 경영과 신용을 기업 경영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독특한 신조인 ‘利不可獨食’(이익을 혼자 먹을 수 없다)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즉 상품거래에 있어서는 매입선인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나아가서는 일반소비자 등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나 소매업자는 그를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익을 적게 보더라도 대량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박리다매 방식을 통해 사업은 날로 번창해 갔다. 더욱이 대량판매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내 생산품은 생산자와 직접 연결시켜 주었으며, 수입처를 다각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약 체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모색해 나갔다.

또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노력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불한다는 신조로 박종실상점을 경영하였다. 훗날 高昌炫, 洪宗彦, 金錫潤, 高君燦, 高柄孝, 高薰範과 같은 사원들이 기업인으로 대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경영철학을 습득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사원들이 사업가로 독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여 주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박종실상점에 근무하면 성공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게 되었다.

이처럼 박종실은 신용, 근면, 절약을 기본정신으로 삼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폭넓게 경제

인 활동을 하였다. 그의 경영정신은 제주도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경영에서도 항상 신용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는 신용, 근면, 절약에 대해 몸소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그가 근대 무역인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용제일주의와 삼균배지론에 의한 투자관을 스스로 실천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상인은 근검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나아가 박종실은 전통적인 상인정신을 승계한 근대적 경제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 2. 박종실의 사회적 공헌

박종실은 1957년 어려운 시기에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불우한 청소년을 위하여 사재를 기꺼이 내놓고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제주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이를 기증하고 제주도립도서관으로 육성시킨 그 탁월한 안목과 실천력은 교육과 육성을 통한 인재양성이 경제에 앞서는 백년대개임을 간파한 가치관의 발로였다<sup>24)</sup>.

당시 제주도에는 1956년까지만 해도 그러한 기능을 띤 공공도서관이 전혀 없어서 시민들의 학습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박종실은 제주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높은 뜻을 세우고 1957년 제주시 삼도1동 235-25번지의 토지(부지: 310평, 건평: 1173평)를 매입하고 그 곳에 본관건물을 신축하여 동년 6월 1일 제주도에 기증함으로써 제주도립도서관이 탄생하게 되었고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문화공간을 갖게 되었으며 동년 11월 1일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64년 1월 1일 제주도

교육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교육위원회에 이관되었다. 그는 도서관을 세운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와 손자들에게 서적을 수집하여 기증하도록 독려하고 이에 감화를 받은 외손녀 고경신(고광립 박사의 딸)이 미국에서 용돈과 장학금 등을 모아 3천여 권의 장서를 기증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1962년에는 그가 재학하고 있던 고등학교에서 제주도 학생들을 위하여 도서를 수집하여 총 700여권의 영문서적을 제주시립도서관에 보내온 사실이 있다.

이 외에도 1965년 11월에는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이들이 시간을 보내며 즐길 수 있는 안식처인 경로당 晴岩亭을 건립하여 제주시에 기증한 바 있다. 또한 1968년 6월에는 박종실의 1주기를 맞이하여 고인의 유지에 따라 3형제(박경훈, 박태훈, 박충훈)가 재단법인 晴巖育英會를 설립하였다. 1978년부터 도내출신으로 기술계대학생들과 도내 중·고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후 제주의 상공인 박종실이 1966년 6월 82세라는 나이로 타계하자 관덕정 광장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그의 장례는 어려운 시기에 현대적인 기업을 일으켜 부를 축적하고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던 그의 경영자윤리를 추모하는 사회적 의의가 있었다.

## V. 맺음말

박종실은 소규모 소매상점에서 시작하여 훗날 종합무역상사의 효시이자 민족자본의 태동으로 일컬어지는 종합해운상사를 경영한 경제사적 연구가치가 많은 기업인이다. 특히 박종실은 교역을 통하여 일본인으로부터 피해를 막고 가에 공헌하겠다는 다짐으로 많은 지역경제국활동에 참여를 하였고 제주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일생

24) 김학보, 『제주도립도서관약사』, 제주도립도서관, 1988, 21 쪽.

을 바쳤다. 또한 기업경영 활동을 통한 이익을 부의 축적에 그치지 않고 도립도서관 기증, 경로당 건립, 육영사업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범적인 경제인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의 노력으로 일제의 침탈과 지역적으로 고립된 섬에 불과하던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현재 제주경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박종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제주도민들을 일제자본, 일본인에 의한 상행위독점들로부터 지켜내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현재의 제주도 경제인들에게 좋은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용과 근검, 절약으로 자본을 축적해 가며 애국정신과 신용제일주의를 근본적인 경영정신으로 삼고 기업운리를 실천적 행동으로 옮긴 박종실의 기업성과에 대한 고찰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박종실은 한말의 혼란기에 태어나 일제의 식민지시대, 해방직후의 혼란기 등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경제인으로서 일생을 보냈다. 그의 50여 년 동안의 기업 활동은 제주도 기업의 발자취를 나타내기도 있기도 하며 그가 걸어온 발자취는 제주도 기업 및 경제인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 결국 그는 제주도에서의 자수성가형 경제인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둘째, 박종실은 제주도에서 최초로 기업형태의 모습을 가진 ‘박종실상점’을 개점하였다. 이는 제주도 근대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나아가서는 제주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박종실은 한국에서 최초로 제주자본에 의해 해운회사를 설립하였다. 더욱이 교통의 발달을 통해 제주도민의 해외진출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해운업의 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만들었다.

넷째, 박종실은 그의 경영정신인 신용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근면과 절약을 바탕으로 한 성실하고 검소한 경제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종실은 현대적인 기업을 일으켜 부를 축적하여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경영자운리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준 경제인이었다.

### ▶참고문헌

- 강용삼·이경수(1984), 『대하실록 제주백년』, 태광문화사.
- 김봉옥(2000), 『증보 제주통사』, 세림.
- 김학보(1998), 『제주도립도서관약사』, 제주도립도서관.
- 김희철·고광명·진관훈(2005), “제주도 기업가 남주강성의 연구”,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 연구』, 도서출판 아트21.
- 김찬흡(2000),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 고광명·진관훈(2006)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 연구—청암 박종실과 남주 강성익의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경영사학』, 한국경영사학회.
- 고광명·진관훈(2005), “제주도 기업가 晴岩 朴宗實 연구”, 『정신문화연구』통권 99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고광명·진관훈(2005), “일제하 濟州島 회사의 설립과 경영활동”, 제48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 자료집.
- 매일신보사(1924.12.22), 《매일신보 : 박종실의 약력》.
- 釜山商業會議所(1930), 『濟州島とその經濟』.
- 변승규(1992), 『제주도약사』, 제주문화.
-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官報』, 1910-1945.
- 濟州商工會(1940), 『濟州商工會議所設立關係』.
- 제주상공회의소(2000), 『제주상의 65년사』.
- 진관훈(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도서출판 각.
- 진관훈(2004), “일제하 제주도 경제와 해녀노동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제27권 제1호.
- 진관훈(1999),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제2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청암선생추모회(1979), 『청암선생-신용은 생명』, 일간내외경제코리아헤럴드.
- 河 明生(1997), 『韓人日本移民社會經濟史』, 明石書店.